

경의선(용산~가좌) 지하화 관련 추진현황

□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경의선(용산~문산) 48.6km 단선 → 복선전철화
- 사업기간 : 1996 ~ 2008
- 사업비 : 1조 7,140억원

□ 추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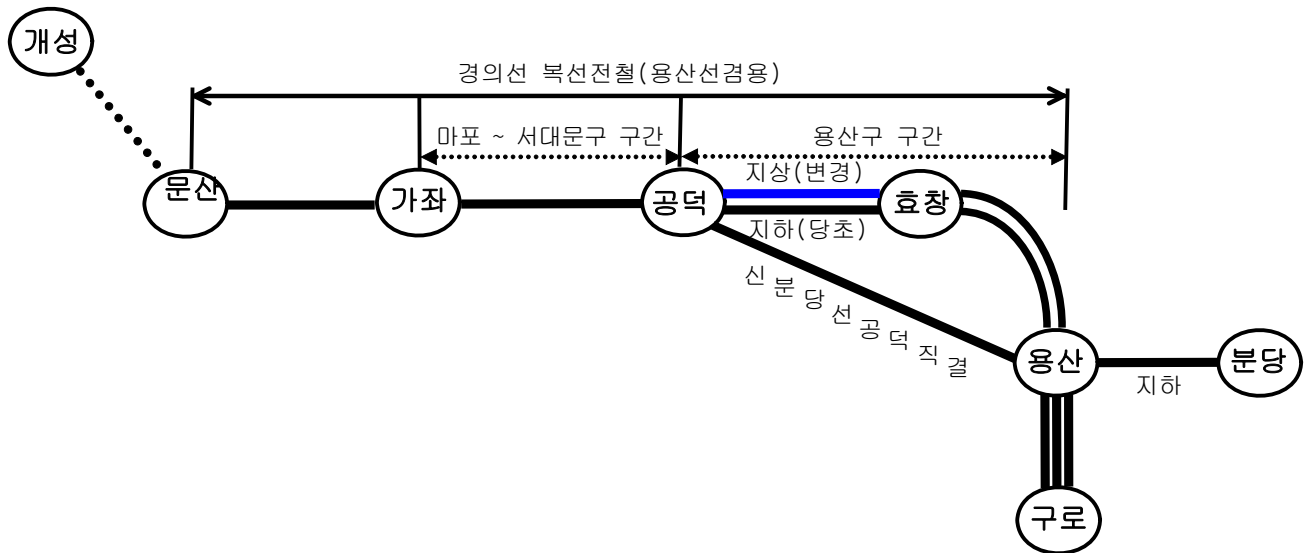
- 02.10. 1차 교통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(경의선지하화)
 - 경의선(용산~공덕) 전 구간 지하로 계획 (별도선로로 장래 분당선에 연결)
 - 기존 경의선 및 용산선은 존치
- 04. 8. 18. : 2차 교통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(경의선지상화)
 - 기존 경의선(용산~공덕)선로 이용으로 계획 변경
 - 기존 용산선 존치
 - 경의선 주변 택지개발 지구 및 구민 집단민원 제기
 - 지상화 반대서명 운동전개 (8,660명 서명)
 - 용산구의회 경의선 지하화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
- 04. 8.31. : 2차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회신(구→공단)
 -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되는 계획수립
 - 주민의 극심한 반대민원 발생
 - 경의선 주변개발에 역행
 - 용산부도심개발계획에서 용산역을 광역교통중심지로 개발
 - 현재의 도로여건상 장래 예상되는 교통량의 수용이 불가함.
- 04. 9. 3.~9.16. :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 반대의견 728부 송부 및 지상화 반대의견 관련기관 송부
- 04. 9.17.~ '06. 5. 9. : 5회에 걸쳐 공청회 개최 요청(공단→구)
- 04.10. 4.~ '06. 6.12. : 공청회 개최 협의에 대한 회신(구→공단)
 - 용산구 및 지역주민에 대한 답변이 없어 공청회 일시 및 장소 협조는 어려운 실정임.
 - 공단에서 우리구 및 주민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구에서 그 대안을

검토한 후 주민공청회 실시 및 장소 협조할 계획임.

- 06. 6.26. : 경의선(용산~공덕간) 지하화 관련 협의(공단→구)
- 06. 6.30. : 경의선(용산~공덕간) 지하화 관련 협의회신(구→공단)
 - 『주변 하수시설 및 하천현황보고서』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산역 구내에서 지상접속이 가능하도록 재검토 요청
- 06. 6.29.~ 7.10. : 감사원 전락3팀 수감(부이사관 김충환)
 - 수감결과 : 국책사업을 감안하여 감사원에서 타당성 있는 “안” 을 제시하면 제시된 “안” 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
- 06. 8.30. : 경의선(용산~공덕간) 지하화 관련 업무협의
 - 지하화 관련 검토서 및 기술적 검토의견 제시
 - 용산구의 새로운 지하화방안 제시 및 그에 대한 기술적 자료요구
- 06. 9.15. : 경의선 지하화에 대한 의견 제출(구→감사원)
 - 감사원 제시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음.('06. 8.24.10:00 도시정비과장 감사원 방문 설명)
- 06.10.26. : 경의선(용산~공덕간) 지하화 관련 협의회신(구→공단)
 - 지상구간과 접속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U-Type구간 주변은 주택재개발 및 문배지구 재건축 사업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경의선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극심한 지역으로,
 - 향후 소음, 분진, 진동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대책(둠구조 등) 강구 요구.
- 06.11.29. : 경의선(용산~공덕간) 지하화 관련 협의(공단→구)
 - 용산구 지하화 건설방안중 지상구간(U-Type)에 대해서는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방음벽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수목식재 등을 설치 예정.
- 07.10.1 :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(감사원→구)
 - 조정내용
 - 신분당선의 종점을 공덕역에서 지하 용산역으로 변경
 - 용산선 용산~효창~공덕구간 1,670m 중 지하배수로의 간섭으로 지하건설이 불가능한 옥천배수펌프장 주변 337m을 제외한 나머지 1,333m을 지하화(80%)
(지하화에서 제외된 337m 중 주민들에 직접적인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281m는 방음터널[DOME]을 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 철도주식회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설치토록 협의 완료)
 - 조치할 사항(용산구청)
 -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경의선 복선 전철 용산~효창~공덕 구간 1,670m

중 지하화하기 어려운 육천배수펌프장 주변 337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,333m 구간을 지하화하는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.

(당초 변경안)



(감사원 조정안)

